



미국,
➔ **안전여행 길잡이**
24년 9/25 기준

(미국) 안전여행 길잡이

<사건·사고 발생 동향>

-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는 총기, 강도, 폭행 등 다양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범죄와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우리 국민이 연루된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신고가 미국 내 각 총영사관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방문객 및 현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 절도 등 범죄 사건도 발생하고 있으며, 혐오범죄와 사기 피해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유형별 범죄 예방 및 대처>

□ 소매치기 절도

-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는 가방이나 카메라 등 주요 소지품을 몸 뒤쪽으로 매지 말고 몸 앞쪽으로 매도록 합니다. 레스토랑, 커피숍, 극장 등에서 가방을 바닥이나 뒤쪽 의자에 두지 말고, 보이는 곳에 두거나 손에 항상 휴대합니다.
- 지나친 귀중품으로 치장하거나 부유한 사람으로 행동하여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매치기범들의 관광객 대상 범죄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으므로, 수상한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이나 민박집 등 숙소에서는 귀중품을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당한 정도의 여행경비, 여권(사본) 등을 분산 소지하고, 도난 사고 발생 시에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고 필요시 신용카드사, 수표 발행 은행에도 연락합니다. 여권 도난 시에는 대사관 및 관할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의한 신속한 범인 체포 및 분실물 회수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여행 전에 도난 사건을 보장해주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둡니다. 여권 사본 및 항공권 사본, 사진 등을 준비해 두고, 현금과 함께 여행자 수표 등을 준비하여 필요시 환전하여 사용합니다.
- 미국 방문 중 여행경비가 부족할 때는 국내 가족에 연락하여 영사콜센터(연락처: +82-2-3210-0404)를 통한 외교부 신속해외송금 서비스를 받거나, Western Union 등을 통해 현지에서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 혐오범죄 (Hate Crime)

-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이후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혐오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행·욕설·괴롭힘 등 신체·정식적 피해, 기물파손 등 재산적 피해, 사이버공격, 서비스거부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유 없이 본인을 주시하거나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눈에 띄면 신속히 현장을 벗어나야 하며, 불필요한 과잉 대응이나 반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국 경찰에서도 혐오범죄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여 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피해 발생 시 증거와 함께 혐오범죄로 인한 피해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기 범죄

- 로맨스 스캠, 보이스 피싱, 이메일 사기 등의 피해 신고가 공관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를 빙자하여 송금,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는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평소 가족 간 연락 체계를 잘 유지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거주자가 온라인 사기 범죄 피해를 보았거나 의심되면 즉시 한국 경찰서(112 또는 사이버경찰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 예방 및 신변안전 요령>

- 주요 우범지역 방문 시에는 주, 야간을 불문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야간에는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고, 낯선 사람이 길거리나 술집에서 시비를 걸 때에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서 술에 약을 타는 수법으로 강도 및 성폭행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음을 자제하고, 술이나 음료를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는 거절하여야 합니다.
- 버스 탑승 시 운전기사 뒷좌석에 앉도록 하고, 기차 탑승 시에는 사람들이 많은 칸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위협을 느끼는 경우 직접 대응하지 말고, 기사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 경찰을 부르도록 합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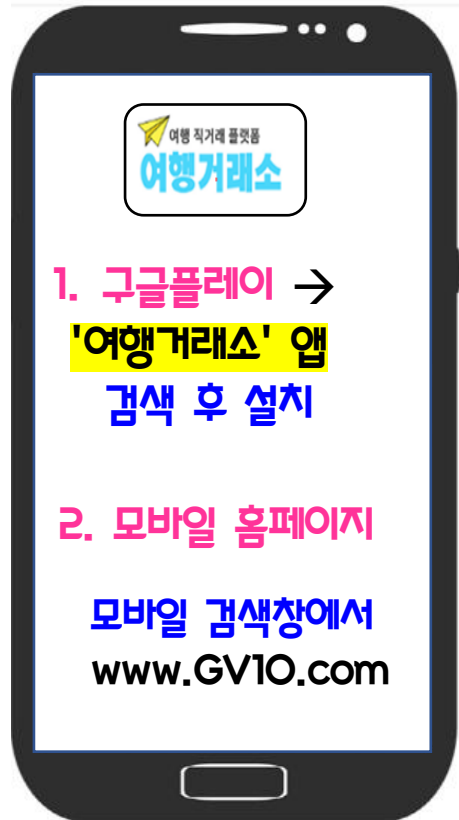
- 경찰이나 구급차가 필요한 긴급상황(Emergency)이 발생하면 911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911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 범죄자가 현장에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었을 때 이용하여야 하며 긴급상황이 아닌 일반신고 (Non-Emergency)는 지역 경찰서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범죄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거나, 현장에 범인이 없는 경우 내외국인 피해를 불문하고 경찰이 바로 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때에 따라 경찰 신고접수 번호(Police Report Number)만 발급하고 현장 방문 없이 종결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 911 신고 시에는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으니 영어에 자신이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공관 연락 필요시 방문지 또는 거주지를 담당하는 총영사관을 확인하신 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미 대사관 대표번호 : +1-202-939-5600
- 긴급전화 (근무시간 외 사건사고) : +1-202-641-8761
- 주미 대사관 영사부 : +1-202-939-5653

출처 : 주 미국 한국 대사관 (240925)

갤럭시 폰에서



모바일 검색창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www.GV10.com

- 최신 각국 출입국 정보
- 다양한 여행상품 원가 정보
- 항공상식 및 항공사 정보
- 현지 생생정보
- 여행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게
- 맞춤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세요 !!

아이폰에서

